

신안 1섬1뮤지엄 첫 작품 ‘숨결의 지구’ 25일 대공개

47억 투입 올라퍼 엘리야슨 작...도초도 화산 지형 영감 세계적 작가 참여 4개소도 내년 하반기 순차적으로 선포

신안군이 '1섬1뮤지엄' 프로젝트로 예술 섬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첫 작품 '숨결의 지구' 준공을 마쳤다.

18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포시즌 호텔에서 올라퍼 엘리야슨(Olafur Eliasson)의 작품 '숨결의 지구' 제작 배경과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문화부 기자들과의 작품 설명회를 열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작품이 위치한 신안군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하고 작품을 설치하기까지 위치 선정, 작가 섭외, 작품 설치 등 6년 간의 여정에 대해 설명했다.

신안군에 설치된 올라퍼 엘리야슨의 작품 '숨결의 지구'는 최초 계획에서 설

치까지 6년이 경과했고, 사업비는 47억 원이 투입됐다.

'숨결의 지구'는 작품은 직경 8m의 공모양 구조물로 입구는 어두운 동굴처럼 만들었다. 어두운 통로를 통과하면 작품의 내부와 맞닥뜨린다. 내부에는 세계 3대 용암석 타일인 산지중 이탈리아산 용암석 타일로 붉은색과 녹색이 정교하게 구성돼 잔란한 햇빛을 반사하며 입체감을 연출하고 새로운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위치는 주변 340만평(약 1만1천200㎡)의 들녘에 둘러싸인 봉우리 주변의 경관농업과 예술이 한 데 어우러지는 최고의 적지로 선택됐다.

이 작품이 특별한 것은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고집스럽게 개척해 가고 있



신안군이 최근 도초수국정원에서 박우량 신안군수, 올라퍼 엘리야슨 작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숨결의 지구' 준공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신안군 제공>

는 신안군 정책의 결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신안군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누구나 가고 싶은 섬을 만들기 위한 '1섬1뮤지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숨결의 지구'는 세계적 예술가가 참여하는 첫 번째 작품으

로 더욱 의미가 크다.

올라퍼 엘리야슨은 "도초도에 조성된 '숨결의 지구'는 과거 화산활동으로 인해 형성된 도초도의 독특한 지형에 영감을 받아 자연의 흐름과 에너지를 시각적으로 재현한 작품"이라며 "자연

의 생명력과 에너지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완성했다"고 구성 배경을 밝혔다.

이어 "하단의 붉은색에서 상단의 녹색으로 변하는 타일은 대지와 태양을 의미하고 식물의 푸르름과 직관적으로

맞닿아 있다"며 "보는 방법을 설정하는 순간 지구와 연결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우량 군수는 "첫 번째 작품은 인내의 도전이었다. 세계적인 작가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높는데 시골에서 그 기준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모든 과정을 인내한 끝에 '숨결의 지구'라는 첫 번째 작품이 탄생했으며 앞으로도 세계적 작가들의 작품이 대중에게 다가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군의 '1섬1뮤지엄' 프로젝트는 총 27개소로 조성완료 17개소, 추진 중인 곳이 10개소이며, 세계적인 작가와 추진 중인 곳은 4개소로 2025년 하반기부터 순차적 추가 공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숨결의 지구'는 오는 25일부터 대중들의 관람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안=양홍기자>

“청년 열정 빛났다” 무안 YD 페스티벌 성료

초대 가수·락 페스티벌·거리 퍼레이드 등 '풍성' 지역사회·청년 함께 성장하는 축제 자리매김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는 '제4회 무안 YD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8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남악중앙공원에서 열린 축제는 '즐거움이 터진다! 무안 YD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개막식은 강산 목포대학교 총학생회장 장과 송주원 조당대학교 총학생회장의 환한 개막선언으로 시작했다. 이어 내빈들의 희망사자 언박싱과 나눔 세리머니가 펼쳐지며, 오색 꽃가루가 뿌려지는 환상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관객들에게는 선물 교환권과 다양한 기념품이 제공돼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개막 축하공연에는 밴드 루시와 가수 김나영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올해 무안 YD 페스티벌은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요 이벤트에 변화를 줬다. 축제 1일 차에 열린 거리 퍼레이드를 2일 차인 토요일로 옮기고, 스트리트댄스 배틀 '올아웃', 락 경연대회, 길거리 캐스팅 등의 콘텐츠를 강화

해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가을밤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둘째 날인 16일에는 해변대 의장대 및 군악대, 9개 읍·면민 등이 참여하는 거리 퍼레이드와 비와이, 행주가 출연하는 합합페스타가 열렸다. 이 밖에도 청년 정책 제안대회, 3대3 길거리 농구대회, 청년 일자리 체험, 청년정책 설문조사 등도 열려 청년들이 주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했다.

친환경 축제를 목표로 1회용품 없는 행사를 지향하며, 다화용기 부스를 마련해 공급, 수거, 세척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국화 작품 전시 및 포토존, 무안고구마 홍보관 운영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축제는 청년들이 참여해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는 자리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축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기자>



'제4회 무안 YD 페스티벌'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남악중앙공원에서 열린 가운데 무안 김산군수가 축제 개막식에서 환영 인사를 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영암군, 외국인주민 정착지원금 지원

초기 거주비 영암사랑상품권 60만원 지급

영암군은 18일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으로 외국인 주민에게 정착 지원금 6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에 살며 취·창업하는 조건으로, 광역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 우수 인재와 외국 국적 동포에게 법무부가 비자

특례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비자 전환 후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특화형 비자로 전환한 외국인주민(F-2-R, F-4-R비자)이 초기 거주비 등을 위해 쓰도록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나 영암군외국인주민지원

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지역 음식점과 생활용품 판매점 등 1천5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박영호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의 광역단체장 추천서 발급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으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지역특화형 비자로 전환해 지역에 정착하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기자>

해남군, 가로수 보호 직물형 방풍벽 시범 설치

겨울철 수목 피해 줄여...재활용 가능해 예산 절감

해남군은 18일 "한 번 사용하고 나면 폐기 처리해야 하는 벗질 방풍벽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기능성 직물 방풍벽으로 겨울철 가로 수목 보호에 나섰다"고 밝혔다.

가로수목 방풍벽은 겨울철 잦은 폭설과 결빙에 따른 압박감 등 각종 시설물 사용으로 인한 가로화단 수목 피

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며, 기존에는 벗질 방풍벽을 설치해 왔다. 벗질 방풍벽은 겨울 동안 사용하면 변색되고 노후화돼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재활용도 안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남군은 올해 시범적으로 폴리프로필렌 직물 소재의 방풍벽을 새롭게 설치했다. 시범 설치 대상지

는 고도교차로-해남교차로 중앙 화단 과남부순환로 등 총 3km다.

직물 방풍벽은 가로수 옆에 피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환과와 강풍으로부터 식물의 생육환경을 보전하는 보호벽 역할을 한다. 벗질보다 부피가 크지 않는데도 설치도 쉽고 방수기능이 있어 세척만 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직물 방풍벽은 벗질 방풍벽보다 유지관리가 쉽고 도시미관 향상과 예산 절감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해남=백필용기자>

“명량해상케이블카 수험생 반값 할인”

내달 31일까지 동반 1인 가능

명량해상케이블카(사진)는 18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반값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수험 공부로 인해 지친 수험생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자 기획했다.

다음달 31일까지 케이블카를 방문해 발권 시 수험표를 제시하면 동반 1인까

지 케이블카 반값 할인이 적용된다.

일반 캐빈 기준 7천500원,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탈 캐빈은 9천원에 이용이 가능하다.

케이블카를 타고 바다 위에서 바라보는 다도해의 아름다운 파노라마 풍경에 힐링하며 그동안 수능 준비로 힘들었던 스트레스를 이곳 울돌목 바다 위에 던져버리고 다가오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리프레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볼 수 있다.



명량해상케이블카 관계자는 "수험생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으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수능시험 준비로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도=윤보현기자>

강진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내달 20일까지...최대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강진군은 18일 "강진사랑상품권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12월20일까지 5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 활용, 주민신고 사례, 고액 또는 반복 결제 등 고위험군 단속 등을 토대로 사전 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행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 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해당 행위가 발견될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위반행위 조사

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정 유통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주민들과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진군은 앞으로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강진=정영록기자>

목포시, 道전지훈련 유치실적 평가 우수상

전지훈련 최적지·스포츠 메카 입증...“동계 훈련 준비 만전”

목포시가 전남도 주관 '2023-2024년 전지훈련 유치 실적 평가'에서 최종 우수상을 수상했다.

18일 목포시에 따르면 전남도는 매년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군을 격려하기 위해 종합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전국체전·전국소년체전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실적 제외하고 유치인원·홍보실적·우수시책 등으로 구성된다.

목포시는 지난해보다 전지훈련 유치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시가 적극 추진한 스포츠마케팅 활동의 성과로 평가 받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2년간 전국(장애인)체전과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인 1종 육상경기장인 목포종합경기장과 바다비체육센터를 신축했다.

목포시는 다가오는 동계 전지훈련 기간에도 타 시·군 선수단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전국 12세 이하 유소년으로 구성된 36개 축구팀

이 참가하는 꿈나무 축구대회를 시작으로 축구, 육상, 하키, 카누 등 2천여명의 선수와 지도자들이 목포를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목포시는 전지훈련 선수단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확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이동 차량 지원 등 다양한 편의사항을 제공하며, 관광 체험 투어와 해상케이블카 이용료 할인 등 혜택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진홍 스포츠산업과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전국규모 대회, 선수단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에 더욱 힘쓰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기자>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진행된 유소년 스포츠리그. <목포시 제공>